**텅빈 지하상가** 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광주시 동구 서석로가 지난 12일 폐쇄되면서 금남지하상가의 유동인구가 급감,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석로 폐쇄 사흘째인 14일 오후 금남지하상가에는 행인들의 발길이 끊겨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서석로 폐쇄…금남지하상가 '울상'

〈옛 노동청~옛 전남도청〉

## "유동인구 끊겨 손해 막심" 보상·대책요구 반발

## 교통안내 제대로 안 돼 운전자·보행자들도 혼선

광주시 동구 서석로 폐쇄가 금남지하도 유동인구 급감으로 이어져 입주 상인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또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 안내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서석로는 지난 12일 폐쇄됐다.

◇발길 끊긴 지하상가 '울상'=옛 전남도청~옛 노동청 구간(서석로 130m)의 통행이 통제됨에 따라 지하상가~ 서석로~서석동, 학동, 지산동 방향 구간이 단절되면서 서석로와 맞닿은 지하상가의 매출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폐쇄된 서석로 아래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보행자도 서석로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폐쇄 당일에야 알게 됐다. 사전에 상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일절 없었다"며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매출이 줄어든 만큼 보상이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년간 이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오고 있는 김화수(여·53)씨는 "복권과 담배까지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라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았는데 이젠 채 30명도 안 된다"며 "통행자 수가 줄어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업주체인 문화관광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홍성우(38)씨도 "서석로가 폐쇄돼 발길이 뚝 끊겨 손해가 막심하다.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정찬규(47) 금남로지하상가 번영회장은 "직접피해는 최소 50개 점포, 크게 보면 270여개 전체 지하상가 상인의 피해"라며 "오늘 밤 모임을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 유인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늦은 예고 운전·보행자 '혼란'=14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 옆 서석로 입구에는 도로 폐쇄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의 헛걸음이 이어졌다. 자전거를 타고 서석로로 향하던 권귀(80)씨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로 폐쇄 안내를) 자세히 표시하지 않아 도로가 이렇게 완전히 막힌 줄 몰랐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30년 이상 광주에서 택시를 몰았다는 한 기사는 "나도 처음엔 헷갈렸다가 이제 적응하는 중인데 일반 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는 오죽하겠느냐"며 "특히 옛 도청 쪽은 표지판이 잘 돼 있는데 동구청에서 옛 도청, 동부경찰서 방향에 대한 표지판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도로 폐쇄 사실을 현수막과 간판 등으로 사전 고지했으며, 도로나 도로시설 관리주체는 광주시이기 때문에 추진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 폐쇄에 관한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의 보도자료가 늦어지자 광주시가 먼저 나서 도로 폐쇄사실을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각각 서석로 폐쇄 3~4일 전인 지난 8일과 9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 사전 고지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결 대부분 일치

# 순조롭게 뿌리내린다

국민의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2년째를 맞아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평결 내용 등을 토대로 순조롭게 뿌리내리고 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8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2.5배 가량 늘었다. 올 연말까지 2건이 더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새 참여재판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참여재판 시행 후 2년간 재판부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대부분 일치했다.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된 '비(非)법률집단의 오심'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2년간 열린 참여재판 11건 가운데 10건이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했다. 반면 판결과 평결이 불일치한 사건은 단 1건에 그쳐 재판의 질적 측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일한 불일치 사건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여·37)씨에 대한 재판으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평·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부여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일각에선 참여재판의 높은 사회적 비용과 홍보 부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향후 제도 정착에의 최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79〉 김종두

## 조선대 '민주화운동기념탑' '민주공원' 건립

조선대학교가 1·8항쟁 21주년을 기념해 학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민주화운동기념탑'〈조감도〉과 '민주공원'을 건립한다.

조선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석홀 앞 광장에서 학내 민주화운동사를 담은 김준태 시인의 헌시와 건립취지문을 새긴 민주화운동기념탑 기공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념탑이 들어서는 서석홀 앞 공간에 민주화 운동과정에 희생된 열사를 추모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민주공원이 조성된다.

조선대 출신 조형예술가 김정환씨가 제작을 맡은 기념탑은 가로 12m·세로 6m·높이 0.5m 크기의 기단 위에 3.4m·3.4m·3.8m 크기의 조형물이 올려지는 형태로, 학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형상화했다. 횃불 모양의 중앙 조형물은 대학·동문·시민사회 등 범조선인의 단결된 힘을 표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장뇌삼 보조금 부정 9명 입건

순천경찰은 14일 김모(58)씨 등 장뇌삼 재배업자 6명과 황모(46)씨 등 종자 판매업자 3명 등 9명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저가의 인삼 종자를 받고 장뇌삼 종자를 산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2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억대 복지기금 '꿀꺽'…노조위원장 등 10명 입건

### 선원회관 불법 임대 5천여만원 챙긴 혐의도

목포해양경찰은 14일 선원들의 복지기금을 유용하고 회관을 불법 임대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목포 A노동조합 위원장 이모(55)씨 등 간부 10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특별조합비 1억2천만원을 노조의 판공비와 비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국유재산인 선원회관을 불법 임대해 6년간 임대료 5천6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노동조합은 최근 외국인 선원 증가로 국내 선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자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10년간 1억8천만원의 특별조합비를 받은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선원들의 휴게실 용도인 선원회관(3층 건물)의 일부층(1, 2층)을 목포항만청의 승인없이 불법 임대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환자 뱃속에 바늘 둔 채 봉합…병원장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수술 도중 환자의 뱃속에 바늘을 놔둔 채 봉합〈본보 11월 27일자 6면〉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장 A(여·53)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P(여·50)씨의 자궁 적출 수술 과정에서 길이 5㎝ 가량의 바늘을 뱃속에 놔둔 채 봉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수술 직후 복통에 시달려왔으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수술용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성관계 미끼 공무원 돈 뜯은 '꽃뱀'

쌍나팔

○…성관계를 미끼로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꽃뱀'과 공범이 나란히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챙긴 A(여·37)씨와 B(40)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2시께 담양군 모 다방에서 전북지역 공무원 C(50)씨에게 "1억원을 주지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손님이었던 C씨와 친분을 쌓아 성관계를 가진 뒤 B씨와 함께 "낙태수술을 해야하는데 책임져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다 결국 '쇠고랑'.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주 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저희 회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및 배당수령 주주 확정
2. 기 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 기준일 : 2009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정 준 양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강 정 원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 12. 01.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0년 2월 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09년 12월 15일
**주식회사 장영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56-4번지
그랑시아웨딩타워 6층
대표청산인 이 승 준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16-1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경리 간부 및 사원 모집**

대한페이퍼텍 주식회사는 산업용골판지원지 생산제조업체로서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제지생산업체입니다. 당사는 제조회사 경리실무 경험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회 사 명 : 대한페이퍼텍 주식회사
■ 소 재 지 : 전남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63-2
■ 업 종 : 제 조
■ 매 출 액 : 700억원/년
■ 근무예정지 : 본사 담양공장 (광주 북구 우치공원 5분거리)
■ 근무조건 : 주5일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모집부문 : 경리 경력직 간부사원 0 명, 회계경력사원 0 명
■ 응시자격 : - 간부사원 (경리분야 10년이상 간부경력자)
- 회계담당 (회계담당 3년이상자)
※ 제조업 결산(세무조정 포함) 가능자
■ 모집기간 : 2009년 12월 14일 ~ 2009년 12월 23일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최소 희망연봉기재,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접수 가능)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담 당 자 : TEL) 061-380-0312, FAX) 061-380-0398
E-mail : mutank290@hanmail.net
■ 기타사항 :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조업계 종사자 우대합니다.

대한페이퍼텍(주)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 구분 | 전문인력의 유형 |
|---|---|
| 자격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
| 학·석사 학력자 |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자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

(서 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 국 싼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환영

가은공인중개사
☎ 371-4449 / 010-8289-8549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신축중인 최고급 무인텔 매매

광주 하남상업지역내
대 지 : 736평
연건평 : 883평
객 실 : 32개
매매가 65억원
융 자 : 30억원
월매출 : 1억원
이상 보장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6996 ☎ 972-8004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증금 16억/월세 750만/융자 6억
▶신축 무인텔 매매(여관)
• 토지 735평, 건물 830평
객실 34실(매가68억)
▶상가매매(첨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권장업종 : 의류, 편의점, 인경, 푸드
▶상가임대
• 아파트 1300세대 입구
(북구연제동) - 1층 11평
임대가 평당500만원
전업종 가능
◉ 구 할 ◉
• 골프 연습장 부지 -광주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각,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